제 목	서울시 시니어 방문 의류수거 사업

□ 개요

○ 시니어 의류 수거단이 방문하여 헌옷을 수거하고 판매 수익금을 의류 수거 시니어들에게 월급으로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의류수거함, "불우이웃 돕는 게 아니네."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옷들은 상당수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고의류로 팔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는 10만5758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 돼 있었고, 그중 70%가 넘는 의류수거함이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영리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 의류수거함 관계자는 "헌 옷의 가격은 kg당 300원으로 무역 규제가 덜 했을 때는 700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상태가 괜찮은 옷들은 집하장으로 보내져 한 벌 당 1000~2000원씩 '구제의류'로 팔리거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된다. 다른 관계자는 "개인운영자별로 의류수거함을 50~60개씩 가지고 있다"면서 "수익이 낮지는 않을 것"이라 귀띔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따르면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협약을 맺어 일정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의류수거함 운영을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는 개인운영자에게 의료수거함 한 대당 매월 2000~3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의류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민간단체는 모인 돈을 가지고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길가에 세워진 의류수거함 주변에는 함께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다.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현황

자치단체명	설치개수	자치단체명	설치개수
서울특별시	19920	부산광역시	3670
대구광역시	4001	인천광역시	9395
광주광역시	823	대전광역시	1517
울산광역시	200	세종시	200
경기도	29451	강원도	1902
충청북도	5639	충청남도	9674
전라북도	2602	전라남도	2861
경상북도	4659	경상남도	7328
제주특별자치도	1916	계	105758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6. 3

의류수거함이 대부분 개인을 통해 운영되다보니 길가에 불법으로 세워진 경우도 많았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1곳만이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류수거함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 또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가 잦아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꼬리를 물었다.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는 설치한 개인이 치워야 하지만 수거함에 관리자 연락처가 없거나 잘못된 번호로 나오는 경우도 빈번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과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도 불법 의류수거함을 정비해 수거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관련조례를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확실하게 불우이웃에게 헌옷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비영리단체들 중에 일부는 헌옷을 직접 가져가 전문매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금으로 소외이웃을 돕고 있다.

□ 개선방안

○ 시니어 의류 수거단이 가정에 방문하여 헌옷을 수거하고 상태가 좋은 옷은 전문매장에서 판매하고 상태가 안 좋은 옷은 묶음 판매하여 수익금을 의류 수거 시니어 월급으로 지급

■ 시니어 의류 수거단
- 지역별로 1~2개 수거 단 운영(1개 수거 단에 1~2명)
- 수거박스를 설치한 삼발이자전거(노인운전가능)를 타고 방문
- 의류 수거 거점 센타에서 당일 방문가정 배분
  ☞ 구역을 나누고 구역 내 거주하는 시니어가 수거
- 짐을 실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 요망
  ☞ 은퇴직후 또는 60~65세 시니어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시니어 의류수거 거점 기관
-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정(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도 무관)
- 관내 시니어 의류수거 사업 홍보
- 헌 옷 의류수거 요청 접수 및 방문할 시니어 배정
- 상태가 좋은 의류를 복지회관 내 또는 알뜰시장에서 판매
- 상태가 좋지 않은 의류는 묶음으로 헌 옷 수거업체에 판매
-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의류수거 시니어 월급으로 지급

■ 시니어 헌 옷 판매거점
-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내
- 관청 민원실 옆(예: 로비)
- 전통시장, 벼룩시장, 알뜰시장 등
-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니어 의류매장 오픈

☀ 분기별 의류 수거량을 파악하여 시니어 의류수거원을 추가채용
☞ 의류 수거량이 많을 때는 거점기관 직원이 직접 차량을 이용해 수거하거나 비영리단체가 수거하도록 인계하도록 함

※ 수거품목을 헌 옷 외에 신발, 가방, 이불까지 확대하고 헌 책, 냄비, 후라이팬 등 재활용품까지 확대하면 수익성이 좋아짐

□ 기대효과

○ 서울시 노인 일자리 확대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불법 헌 옷 수거함들이 사라지게 되어 도시미관도 깨끗해짐